

고흥군 수돗물 관리 스마트해진다

55억 투입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내년 2월 완공...정보통신기술 접목 물 관리·수질사고 예방

고흥군이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착수한다. 고흥군에 따르면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상수도 공급 전반적인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실시간으로 유량·수질을 감시해 관로 내부에 축적된 이물질 등이 수도꼭지로 유출되는 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또 긴급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봉래면 일원 붉은 물 유출 사고와 관망 노후로 수도시설 개선이 시급한데다, 수돗물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선진화된 물관리 시스템 도입이 절실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은 환경부로부터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아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국비 39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5억원을 투입해 내년 2월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봉래, 동일면 일원 노후관 35km 세척 작업 ▲수돗물 사용량 검증을 위한 스마트미

터링 도입 ▲이상 수질 발생에 대비한 자동드레인 시설 ▲중앙제어실에서 수질과 유량, 수압 등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상수도를 관리하고 사고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곡성 초등생들 마을 책자 만든다

석곡면 자원발굴 프로젝트 참여...10월 발표

곡성군 초등학생들이 마을 책자를 만들어 눈길을 끈다. 곡성군은 석곡면에서 초등학생이 직접 마을 책자를 만들기 위해 '석곡면 자원발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석곡면 자원발굴 프로젝트는 2022년도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석곡면에 숨어있는 다양한 자원을 발굴해 책자로 엮고 이를 지역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으로 지난 1월 창립한 석곡면 교육협의회인 '석곡교육을 사랑하는사람들'이 맡았다.



초등학생을 포함한 석곡마을 주민들이 '석곡면 자원발굴 프로젝트' 기초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효과적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앞서 석곡문화센터에서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초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다양한 석곡면 주민들이 참여했으며 그중에는 초등학생도 포함됐다. 이들은 교육을 통해 마을 자원의 개념 알기, 마을 자원조사 방법 익히기, 마을별 사례 공유하기, 석곡면 마을 자원조사 기획하기, 기획 구체화하기 등 직접 제작에 필요한 방법과 내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군은 교육을 통해 석곡면의 자원들을 석곡면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시선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기획의 방향을 결정했다. 또래 아이들에 대한 인

터뷰를 통한 자원 조사, 자원 발굴을 위한 자료 수집 등을 실시해 책자를 제작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결과는 올 10월에 예정된 책자 발간 기념회와 석곡면 행정복지센터, 석곡초등학교, 석곡중학교 등 주요 기관에 비치된 책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아이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정을 쌓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책자를 통해 석곡에 다양한 자원들이 있음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나아가 발굴한 자원들을 연결해 공동체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t@kwangju.co.kr

남도, 예술 속으로

국내외 작가 여수서 '푸른 구슬의 여정'

여수국제미술제 9월 2일 개막...40여 작가 회화·사진 등 무로

'2022년 여수국제미술제'가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3일까지 32일간 여수엑스포에서 개최된다. 이번 미술제는 여수시가 주최하고 여수국제미술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한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한 여수국제미술제는 해마다 3만 명 이상이 관람하는 전시회로 여수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행사 중 하나이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이번 미술제의 주제인 '푸른 구슬의 여정'은 인간도 자연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함께 공존하길 바라는 취지를 담았다. 미술제에는 한국의 대표작가 이승택을 포함한 국내 현대작가 33명과 해외 작가 10명이 참여한다. 여수엑스포 D전시홀(D1~D4)에서 회화, 사진, 설치미술 등 총 120여 점의 작품을 무료로 만

나볼 수 있다. 작가 특유의 시선으로 바라본 자연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여정과 그 흔적을 다양한 작품을 통해 느낄 수 있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흔치않은 기회이다"며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셔서 방영 수칙도 잘 준수하며 즐겁게 관람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영·호남 문화예술단체 '바다로 하나로'

남해안남중권문화예술제 26일 개막...한국화·서양화 등 180여점

제5회 남해안남중권문화예술제가 오는 26일부터 남해군 실내체육관에서 5일간 개최된다. 남해안남중권협의회는 보성·여수·순천·광양·고흥 등 전남 5개지역과 진주·사천·남해·하동 등 경남 4개 지역으로 이뤄진 단체다. 이번 행사는 '2022년 남해안 방문의 해'를 기념해 특별기획 됐으며 남해안남중권의 희망과 화합의 메시지를 담아 '새로운 설레임, 바다로 하나로!'란 주제로 영·호남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한다. 전시실은 자연의 풍류를 느낄 수 있는 한국화에

서 다양한 화풍의 서양화, 서예, 사진까지 약 180여점의 작품으로 구성되며 출판작가와 지역 예술인, 관람객들이 즐겁게 소통하는 예술한마당으로 준비된다. 26일 개막식에는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의 애환을 풀어주고 문화예술의 번영을 기원하는 살풀이 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공연이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주말에는 남해안남중권 시·군 공연으로 진주 교방굿거리, 남해 민요, 순천 대금연주와

민요, 보성 국악소리마당으로 다채롭게 마련하여 흥겨운 남도의 몸짓과 소리로 관람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한 '남해군 방문의 해'를 기념해 남해 특별관을 운영, 남해군 관광상품과 특산품을 함께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장인 김철우 보성군수는 "영호남 화합과 예술인의 긍지를 높이고 독창적인 문화창출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기울의 시작을 문화예술의 정취와 함께 지역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까지 신명나게 어울려 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보성 순환형 산책길 조성 마무리 단계

보성에 조성중인 순환형 산책길이 곧 완성될 전망이다. 보성군은 2019년부터 추진한 '다가는 주민 복지 숲'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면서 보성읍 순환형 산책길(사진)이 완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민선7기부터 1000만 그루 도시 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녹차밭보성향토시장-철로변 공한지를 이용한 주민참여숲 ▲동운천 생태하천공원(테크길) ▲다가는 주민 복지 숲 등을 조성해 보성읍 순환형 산책길을 조성해 왔다. '다가는 주민 복지 숲'은 미세먼저 저감, 악취 유입 차단을 위한 다가는 도시 숲으로 보성읍 우산주공아파트 옆 우산교차로에서부터 장거리교차로까지 국도 2.1km 구간이다. 군은 숲 조성을 위해 보성읍 신흥동산 종합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토사를 복지 숲으로 운반·활

용했으며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해 무상으로 수목을 분양받았다. 군은 이 숲이 보성읍을 동에서 서로 이어주면서 주민들이 건강휴양을 할 수 있는 쉼터이자 공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숲 중앙에 개설된 오솔길(2.1km)에는 송이사석과 마사토를 포설해 맨발로(路)를 만들 예정이다. 또한 교통섬에 있는 쉼터 숲 공간에는 특색 있는 수목과 야생화를 식재하고 쉼터 테크를 설치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민 복지 숲'에는 이용자를 고려한 배려도 녹아있다. 어린이 이용객들의 이탈이 우려되는 구간에는 대나무를 활용한 안전 보호 난간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숲을 더 오래 즐길 수 있도록 쉼터 공간에 대나무 평상을 배치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음악 감상하러 광양금호도서관 간다



최고급 오디오 시스템 '음악당' 오픈 음악감상 프로 평일 2시부터 진행
광양금호도서관에 음악감상실이 문을 열었다. 광양시는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전문 음악감상실 '음악당' (사진)을 광양금호도서관 내에 오픈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개관한 금호도서관은 실물 음악자료

(CD, LP, DVD)를 고품질의 음향으로 청음할 수 있는 기회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음악당을 마련했다. 음악감상 프로그램 '음악당당당'은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운영된다. 감상실에서는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통 클래식, 국악, 오페라, 퓨전 뮤지컬 공연 실황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중 명반을 선곡해 들려준다. 또 사서 컬렉션으로 매주 도서관에서 소장하는 음반 큐레이션과 연계한 음악감상 프로그램을 마련, 시민이 더욱 쉽게 예술 장르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음창호씨가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